진도군, 체계적 인구정책 성과로 4년여 만에 인구 증가 전환

내 고장·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 출산·보육, 주거, 일자리 등 다양한 생활 여건 개선

진도군이 그간 꾸준히 추진해 온 인구정책이 결실을 이루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20년 12월 이후 매월 평균 58명씩 감소하던 인구는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전월 대비 9명이 증가하면서 4년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4월 말에도 전월 대비 1명이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인구 순증이라는 고무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인구 반등은 진도군이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추진한 내 고장·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과 함께 출산·보육, 주거, 일자리 등 다양한 생활 여건 개선 정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내 고장·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은 전 군민과 관내 기관·단체·사업체가 참여해 인구 문제가 지역의 존립과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가족·지인·동료들이 실제 생활지나 근무지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권장하는 운동(캠페인)이다.

이 운동은 이어달리기(릴레이) 방식으로 전개되며, 현재까지 육군 제8539부대, 진도교육지원청, 진도소방서, 국립남도국악원, 수자원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11개 기관·단체가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지역 내 실거주 주소 갖기 분위기'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진도군은 출산율 제고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출생부터 교육까지 자녀 1인당 최대 1억 1,893만 원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첫째아는 1억 743만 원, 둘째아는 1억 843만 원, 셋째아 이상은 1억 1,89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지원은 출산장려금, 출생기본수당, 입학축하금, 청소년 쿠폰(바우처), 고등학생 해외연수, 대학 신입생 장학금 등 총 15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를 통해 출산을 유도하고 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도 병행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전남형 만원주택 60세대, 청년공공임대주택 18세대, 간호·복지 인력을 위한 기숙사 30세대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조성 중이며, 청년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희망일자리 지원, 근속장려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창의적이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도 적극 발굴·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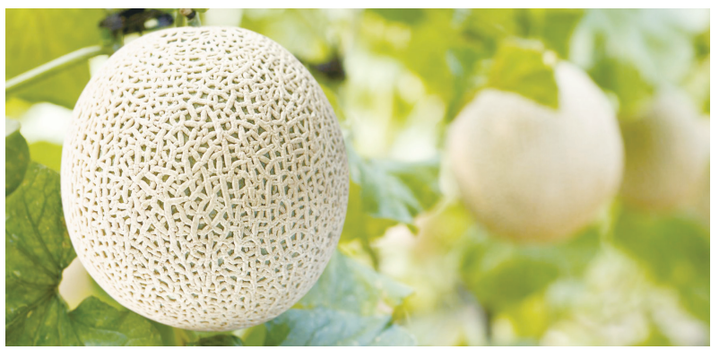
외부 인구 유입의 확대를 위한 귀농·어·귀촌인 정착 지원도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예비 이주자들이 일정 기간 진도에 머물며 일자리와 생활 여건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진도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2~3개월 동안 거주가 가능한 체험 공간을 제공한다.

중기 정착단계에는 귀농인의 집 7개소를 운영해 6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가 제공되어 초기 정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유휴 빈집을 리모델링한 '보배섬 하우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2년간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단계별 주거 지원 외에도 농가주택 수리비, 이사비용, 영농·어업 자재,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진도/오재명 기자



곡성멜론, 2025년 첫 출하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대표 농·특산물인 곡성멜론이 5월 9일(금)을 기점으로 2025년 첫 출하를 시작했다고 9일 전했다. 곡성멜론은 매년 전국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지역 대표 작물로, 올해도 탁월한 당도와 품질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곡성군은 유기물 함량이 풍부한 토양과 일조량, 큰 일교차 등 멜론 재배에 최적화된 지리적 환경 덕분에 곡성멜론은 자연스럽게 당도와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육묘부터 수확, 선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더해져 고품질 생산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졌다. 현재 멜론을 재배하는 농가는 280여 명에 달하며, 총 116ha의 재배면적을 확보해 곡성의 대표 고소득 작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곡성군은 곡성멜론을 '명품 브랜드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공동선별을 위한 포장재 구입비, 유통·물류비, 농수산물 수출특화품목 직불금, 수출물류비 대체지원 등 재배농가와 유통 기반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기반을 바탕으로 곡성군은 기존의 명품 브랜드를 넘어 'K-곡성멜론'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년에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지역에 총 72톤, 약 17만 달러 규모의 멜론을 수출하며 곡성멜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이번 출하를 시작으로 곡성멜론은 오는 8월까지 본격적인 수확과 판매가 이어질 예정이다. 군은 또한 온·오프라인 등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혀갈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멜론은 단순한 과일을 넘어 지역 농업의 경쟁력과 자긍심을 상징하는 작물"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곡성/이정수 기자

"보성군민의 목소리가 예산으로 실현됩니다!"

보성군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연중 상시 접수

보성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을 군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주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제안 분야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성 높은 사업, ▲인구 늘리기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등이다.

사업 제안은 보성군민 누구나 가능하며, 보성군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와 임직원도 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보성군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공개 〉 예산정보 〉 '예산편성에 바란다'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군청 기획예산실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의 타당성, 주민 수혜도 등 검토를 거친 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다. 단, 2025년 10월 1일 이후 접수 건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 검토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통해 군민이 직접 지역 발전에 참여해 정책 반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라면서,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고흥군, '실내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 사업' 추진

고흥읍에 아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공공형 키즈카페 공간 조성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키즈카페인 '실내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실내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 사업'은 고흥읍 일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실내 놀이시설과 드론 체험프로그램 공간 등을 갖춘 복합 육아 지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5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 면적 869㎡,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 중이다. 1층은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놀이시설을 마련하고, 2층에는 드론 기초교육과 시뮬레이션 조정법을 익힌 후 직접 드론을 조정하며 장애물 피하기와 드론 축구 게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8월 중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시설은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 간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연대감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농어촌 어린이에게 동등한 놀이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복합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민 군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고, 부모도 함께 쉬며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공형 키즈카페가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공공형 키즈카페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062-525-9775

함평군, 깨끗하고 건강한 하천 위해 정화·감시활동 전개

전남 함평군이 하천 수질 보호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운영과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며 쾌적한 하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함평군은 "지난 4월부터 하천 환경 개선을 위한 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선제적인 오염 예방과 생태 보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방하천 환경지킴이'는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관내 하천을 순찰하며 ▲천변 쓰레기 수거 ▲불법 투기 감시 ▲불법 어로행위 계도 등의 활동을 펼치며 하천 환경 오염 예방뿐 아니라 군민의 환경 의식 제고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될 수 있는 쓰레기를 사전에 수거·처리해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수질오염 방지와 쾌적한 하천 경관 유지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하천은 지역생태계의 핵심 축이자 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간"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건강한 하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청년이 미래다"… 영광군, '청년부군수' 공개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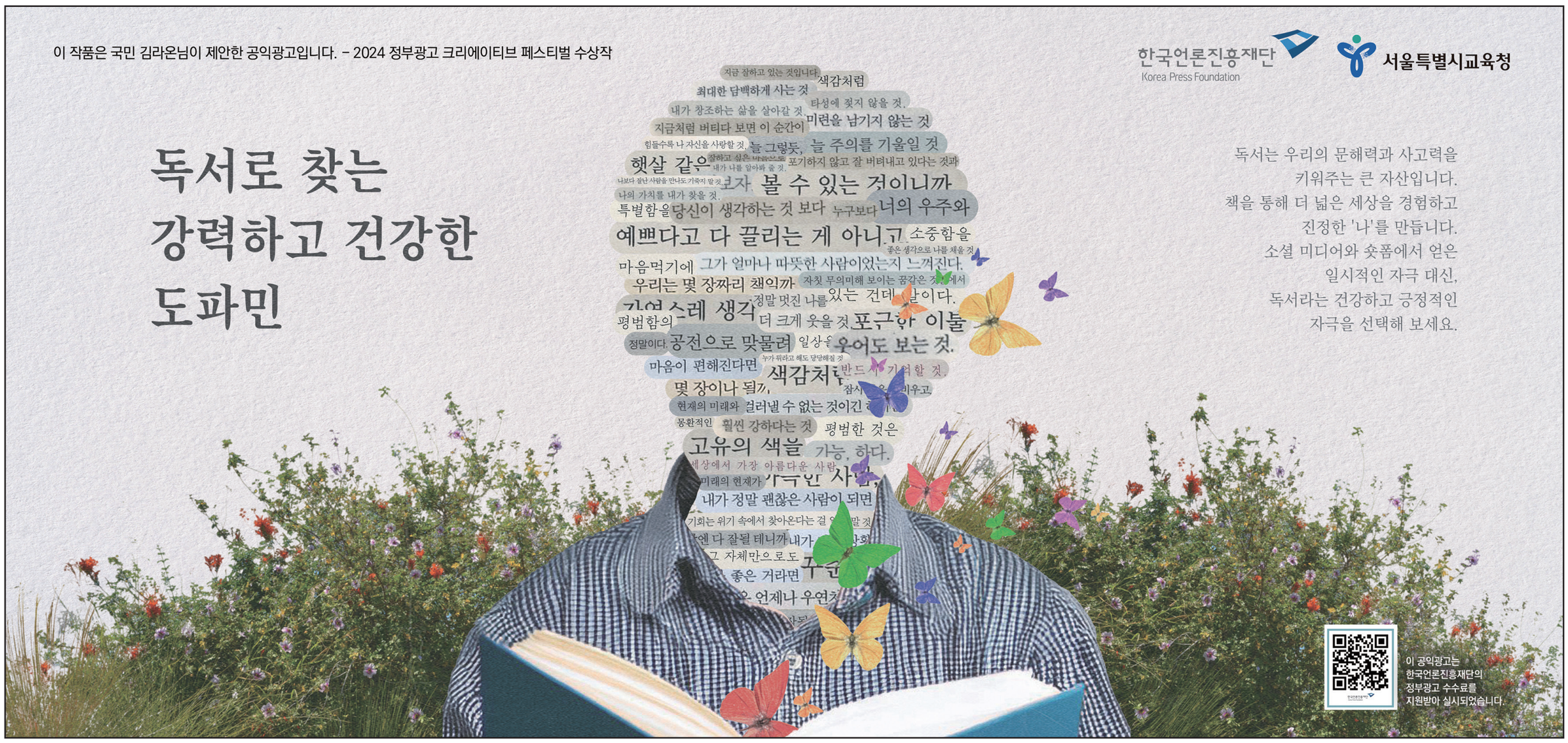
영광군이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군 행정과의 현실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부군수'와 '청년정책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민선 8기 장세일 군수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청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군정의 동반자이자 주체로 세우겠다는 군정 철학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제도다.

모집 분야는 ▲청년 부군수 1명 ▲청년정책위원 14명으로, 만 19세부터 45세 이하의 영광군 거주자 또는 관내에서 활동 중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마감은 오는 5월 16일까지다.

영광군이 추진중인 청년부군수 제도는 영광 청년을 대표하는 역할로 군수와 함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현장활동이나 회의에 참여하며, 청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군정에 실질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청년정책위원은 청년부군수와 함께 청년정책 제안, 진단 및 평가 등을 통해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과정과 정책추진 현장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누리집 및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광/이현식 기자